

북한, 10년 사이 최악의 식량난으로 곡물 부족분 136만톤 추정¹⁾

2018/19년 봄작물 작황 부정적

6월 수확 예정인 2018/19년 봄작물의 생산 전망은 부정적이며, 이는 강수량 및 적설량 부족으로 겨울 기간 작물들이 몹시 낮은 온도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작물 생장에 치명적인 3~4월 기간 봄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하회하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습윤도가 감소하여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의 봄작물 생산량은 30만7,000톤으로 2017년 수준에서 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리한 기후조건과 더불어 관개용수 및 비료 등 농업투입재 부족 또한 이러한 감소에 기여했다. 4월 강수량 또한 평년 수준에 못 미침에 따라 5월 중순까지 날씨 개선되지 않는다면 봄작물 생산량은 더 적을 수도 있다.

수확-저장 단계의 수확후 손실량은 평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료 및 전력 부족이 작물의 시기적절한 운송과 가공은 물론 비축분의 통풍을 저해한 것에 기인한다.

2018년 식량작물 생산량 10년만에 최저치

2018년 가을작물 수확은 2018년 9~10월경 마무리되었다. 2018년 7~8월 강수량 부족과 이례적으로 높은 기온, 그리고 관개용수 부족은 작물 손실 및 단수 급감으로 이어졌다. 이에 더해 연료 및 전력 부족, 농업투입재 공급량 감소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공식 추정치에 따르면 2018년 주요 식량작물 생산량은 전국적으로 줄어들었으며, 그 중 곡창지대로 분류되는 황해북·남도, 평안북·남도, 함경북·남도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8월 말부터 9월 10일까지 내린 폭우로 인해 황해북·남도의 주요 작물 생산지역에서 국지적 홍수를 초래하면서 수확 직전 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그 결과 2018년 가을작물 생산량(곡물상당치, 정곡 기준)은 450만톤으로 2017년 수준에서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식량작물 생산량은 평년 수준을 하회하는 490만톤으로 전망되며, 이

¹⁾ 이 자료는 2019년 5월 3일 WFP 및 FAO가 발표한 'FAO/WFP Join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FAO 한국협회에서는 추후 본 보고서를 전문 번역 발간할 계획이다. 원문은 다음을 참고: <http://www.fao.org/3/ca4447en/ca4447en.pdf>

는 평균 수준의 1년 전 대비 12% 감소한 것이자 2008/09년 이후 최소치이다.

2018/19년도 곡물 수입필요량 증가

2018/19 유통연도(11~10월) 곡물 수입 필요량은 159만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5개년 평균치의 3배 수준이다. 이는 주로 생산량 감소 및 연료와 전력 부족에 따른 작물의 적시 운송 및 가공 저해 등으로 인한 평소보다 높은 수확후 손실에 기인한다. 상업적 수입량은 공식적으로 20만톤으로 계획되었으며, 식량 원조량은 2만 1,200톤으로 설정된 가운데 곡물 부족분은 136만톤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식품 소비 및 식량안보

식품 소비수준 및 식단의 다양성은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식단은 주로 쌀, 옥수수, 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치(배추) 또는 이용가능할 때에는 채소를 곁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섭취량 또한 매우 부족하다. 이렇듯 열악한 식품 소비는 조사 대상 인구 사이에서 매우

만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을 위한 성인의 식량 소비량 및 식사량 조절 등 식량 관련 대처전략은 널리 채택되고 있다. 식량 접근 및 소비를 다양화하고자 농촌지역의 친척들에게 의존하는 도시 가구는 이를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속해나갈 수 없게 되었으며, 농촌 가구들 또한 점차 식량부족을 직면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공공배급시스템(PDS)을 통한 배급량은 1인당 300g으로 축소되었으며, 이는 2018년 1월의 380g에서 줄어든 것이다. 다른 달에 비해 PDS 배급량이 일반적으로 더 낮은 7~9월 기간 동안 배급량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현재 북한 주민 1,010만명(인구 전체의 40%)이 식량불안에 처해 긴급 식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추정된다. 즉각적이고 적절한 인도주의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5~9월 단경기 동안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담당: 김연규(fao@fao.or.kr)

표. 2018/19 유통연도 식품수급표(천톤)

	쌀(정곡)1	옥수수	밀/보리	기타 곡물	감자2	대두3	합계
국내공급량	1,378	1,876	57	198	499	162	4,170
가을작물 생산량	1,378	1,876		198	249	162	3,863
겨울/봄작물 생산량			57		250		307
총소비량	1,942	2,710	244	198	499	162	5,755
식용	1,621	2,110	219	156	269	139	4,513
사료용		137			20		157
종자용	46	51	13	13	85	6	214
수확후 손실	276	413	12	30	125	16	871
재고 비축량	0	0	0	0	0	0	0
수입필요량	564	834	187	0	0	0	1,585
상업적 수입량(계획)							200
식량원조물량(확보분 및 서약물량 포함)							21
부족분							1,364

주: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1. 쌀은 도정을 66% 2. 감자는 35% 전환율을 적용하여 곡물상당치로 환산 3. 대두는 120%의 전환율을 적용하여 곡물상당치로 환산